

군산서부권 체육 인프라 메카로

서군산체육센터 시설 준공 완료... 하반기 개관식 앞두고 운영 현황 현장 브리핑 개최

군산시 체육진흥과는 8일 서군산체육센터(임사길14)에서 체육시설 준공 및 운영 현황에 대한 현장 브리핑을 개최했다.

서부권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4년 11월 준공된 서군산체육센터는 2019년부터 총사업비 280억 원(국비 50억, 도비 34억, 시비 196억)을 투입하여 추진된 대규모 복합체육시설로, 부지 19,918㎡(축구장 포함 34,795㎡), 연면적 8,452㎡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에는 △25m×8레인 규모의 실내 수영장과 어린이풀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 △탁구장 △소규모 운동실 및 회의실 △200석 규모의 수영장 관람석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축구장(인조잔디 1면)도 포함돼 있다.

센터는 2024년 12월부터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 2월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하루 평균 1,100여 명이 꾸준히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총 22,39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시민 수요를 반영해 2025년 4월 한 달간 평일 저녁 9시까지 연장 운영을 검토하기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의 이용객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운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필라테스, 요가 등 7개의 다양한 GX(그룹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터는 4월 7일 탁구장 개방 등 점차 운영 범위를 확대

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하반기 중 공식 개관식 개최할 예정으로 지역민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자체 카카오톡 채널과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이용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 운영을 최적화하여 더욱 쾌적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한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법령에 맞게 조정”

군산시의회 환경보 의원 발의,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건위 원안 가결

군산시의회 환경보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표현수단인 정당현수막의 설치기준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기존에 “정당현수막은 지정계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 규정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5조의2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법령과의 일치성을



확보하고, 정당 활동의 자유와 도시미관 간의 균형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용하고 정당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정 정비”라며, “앞으로도 법령 변화에 맞춘 신속한 조례 정비로 시민과 행정의 혼선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하, 모현)이 지난 7일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자립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청소년·청년 고독사·고립 예방 논의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송하, 모현)이 지난 7일 청소년 및 청년들의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자립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및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적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관련 자치조례 제·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청소년자립학교 김흥주 이사장 및 관계자와 이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흥주 이사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 만 19~34세 고립 은둔 청년 인구는 약 78만 명으로 2022년 조사 당시의 2.4%보다 증가하여 전체 청년 인구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고립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승현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청소년·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며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는 1인 가구 및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법적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청년들은 1인가구에서 제외되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2023년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기존의 ‘1인 가구’에서 ‘사회적 고립 생활’로 범위가 더 확대되고 완화되어 지역사회도 이에 발맞춰 현실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익산시, 재가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지역 확대

익산시가 방문재활서비스 지역을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익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지역을 함열읍을 중심으로 읍·면까지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방문재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을 위해 전문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통해 재가장애인에게 스트레칭·자기운동 교육을 비롯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검진 △낙상사고 예방·대체법 교육 등을 제공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발굴한다.

시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 인구 수와 사업 대상자 수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중점지역을 선정하고, 지난해 장애특화차량 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전용 차량 1대를 확보했다. 전용 차량을 활용해 월 1~2회 함열읍을 중심으로 읍·면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방문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장점검 실시

익산시가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에 나선다.

익산시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친환경 인증기관의 감사와는 별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검사다.

점검 대상은 탐마루 친환경 쌀 생산단지 200ha로, 논두렁 제초제 사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이 적발된 필지는 생산 불가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재배 농가 교육을 진행해 생산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에 힘쓰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견고, 찍고, 할인받자’ ... 익산 중앙동 스탬프 투어

중앙동 관광지 3곳 방문 시... 금증제과 5% 할인 제공

익산시가 중앙동을 걸으며 여행도 즐기고, 금증제과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익산시는 ‘걸어서 중앙동 속으로’ 스탬프 투어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고 8일 밝혔다. 중앙동의 대표적인 명소 7곳 중 3곳에서 도장을 찍고 금증

제과를 방문하면 5%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장소는 △보글하우스 △청년들 ‘상상노리터’ △익산 근대역사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홀로그램 체험관 △홀로스테이션 △익산글로벌문화관으로 장소마다 특색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보글하우스는 라면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전시체험관으로, 나만의 라면 만들기 체험 등을 제공해 이색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상상노리터’는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음식과 디저트, 특색 있는 기념품을 만나볼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함도문화전자대전